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김 종 호

(부연구위원 · 산업경쟁력실)

jhkim@kiet.re.kr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진입규제와 관련된 규제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측정해서 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자료를 가지고 진입과 관련된 국가별 규제수준을 파악하였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활동을 열 가지로 구분해 각 부문별로 세부 규제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항목들에는 창업소요일, 창업절차,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이 있다.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이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규제의 효과를 측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장진입과 관련된 항목들 가운데 창업비용이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좀 더 구체적으로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이 10% 포인트 감소할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0.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은 창업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최소자본금 등을 낮추는 것도 규제완화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책변수의 선택과 그 완화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서론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은 많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으로서 노동 및 자본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솔로우(Solow, 1956)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이론적 연구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 연구로는 배로(Barro, 1991)를 들 수 있다. 배로는 1960~1985년의 98개국 자료를 이용해서 경제성장과 노동, 투자, 정부소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배로 이후 경제성장의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Hall and Jones, 1999; Acemoglu et al., 2001)은 정치·경제적 제도(institutions)와 경제성장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드얀코프 등(Djankov et al., 2006)은 정치·경제적 제도적 질(quality)의 척도로서 정부규제를 정의하고, 정부규제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국가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드얀코프 등은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기업활동 단계와 관련된 규제들의 국가별 수준을 측정하고, 이 규제수준과 국가의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여기서 규제수준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수준의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로서 국가의 법적 근원(the legal origin of a country's commercial code or company law), 종교, 언어 등을 이용한 2SLS(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였다.

드얀코프 등은 배로의 모형을 변형한 실증분석 모형을 사용했는데, 경제성장의 설명변수로서 시차 연도의 1인당 GDP, 초등학교 진학률, 중등학교 진학률 등을 이용하였다. 드얀코프 등에 따르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규제수준과 경제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규제수준을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들을 완화해야 하느냐는 정책적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규제수준을 보이고 있는 진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시장으로의 진입과 관련된 규제항목들이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진입규제와 관련된 규제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1) 실증분석 모형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의 성장모형을 기초로 하고 있다.

$$\text{Growth} = F(L, K, E)$$

여기서 Growth는 경제성장, L은 노동과 관련된 변수들, K는 자본과 관련된 변수들, E는 노동과 자본을 제외한 기타 변수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모형을 기초로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규제가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방정식을 국가별 거시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하였다.

$$\text{Growth} = F(\text{Regulation}; L, K, E)$$

본 연구에서는 배로의 성장모형을 확장한 드얀코프 등을 따라서 다음의 기본 모형을 고려하였다.¹⁾

$$\text{Growth}_i = \alpha + \beta \text{Regulation}_i + \gamma X_i + \varepsilon_i$$

여기서 Growth_i 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1인당 GDP의 평균 증가율, Regulation_i 는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보고서 2004’에서 조사된 2003년 1월 기준 각국의 규제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X_i 는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으로, 1989년 1인당 GDP의 로그값($\ln(\text{GDP}_i)$), 1989년의 초등학교 진학률(Primary_i), 1989년의 중등학교 진학률(Secondary_i), 1989년부터 2004년까지 GDP 대비 정부소비의 평균 비율(GovtConsumption_i) 등을 포함한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변수(Regulation)를 진입규제 변수들로 대체한 다음의 경제성장 추정 방정식을 이용하여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begin{aligned} \text{Growth}_i = & \alpha + (\beta_1 \text{Proc}_i + \beta_2 \text{Days}_i + \\ & \beta_3 \text{Cost}_i + \beta_4 \text{Mincap}_i + \\ & \beta_5 \text{Reg}^c_{\text{os},i}) + \gamma X_i + \varepsilon_i \end{aligned}$$

여기서 Proc_i 는 창업에 필요한 절차수, Days_i 는 창업 소요일수, Cost_i 는 창업비용, Mincap_i 는 창업에 필요한 최소 자본, $\text{Reg}^c_{\text{os},i}$ 는 시장진입 관련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의 수준을 나타내고, X_i 는 경제성장을 설명하

1) Djankov et al.(2006)은 암묵적으로 1993~2003년 사이에 각 국가별로 규제수준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2003년 1월 기준의 규제수준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1993~2003년의 1인당 GDP 평균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규제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는 통제변수들의 집합이다.²⁾

(2) 자료

진입규제 지표들을 제외한 경제성장, 국내투자, 정부소비, 진학을 등의 거시변수들은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7) 자료를 사용하였다. WDI에는 거시지표가 2005년까지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만 거시지표가 발표되어 있다. 따라서 표본 수를 늘리기 위해 1인당 GDP, GDP 대비 국내 총투자, GDP 대비 정부소비 등의 평균값은 2004년까지의 수치를 이용하였다.

진입과 관련된 규제들에 대한 국가별 수준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

서 2004”에서 창업(Starting a business)과 관련된 규제항목들로부터 측정하였다. “기업환경보고서”는 2004년에 처음 발간되기 시작해서 매년 발간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별 평균 경제성장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치이고, 규제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들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가장 이른 시점에서 측정된 2004년 보고서를 이용하였다.³⁾

진입규제와 관련된 항목들은 창업(Starting a business) 부문의 i) 창업에 필요한 절차, ii) 창업에 소요되는 일수, iii)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 iv) 창업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규모 등이 있다.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2004년 보고서의 진입 관련 규제항목들을 정리한 <표 1>에 따르면,

<표 1> 진입 관련 규제항목 : 기업환경보고서 2004

	표본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창업절차	133	10.27	3.42	2	19
창업소요일	133	52.98	38.55	2	202
창업비용	131	74.92	119.19	0	763
창업최소자본금	127	117.25	208.10	0	950
진입규제 이외 항목들의 규제수준	133	67.01	38.54	1	133

2) 창업절차 수, 소요일, 비용, 최소자본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부록>에 정리되어 있다.

3) 규제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평균 경제성장률이 측정된 기간 동안 규제 수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나 각 국가들이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특히 모든 나라의 규제완화 노력 및 그 결과가 같지 않을 경우-이러한 가정의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처음에 발간된 “기업환경보고서 2004”를 이용해서 평균 경제성장률이 계산된 기간과 규제시점이 가능한 한 많이 겹치도록 하였다.

창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절차, 일수, 비용, 최소자본금 등이 각각 10.27개, 52.98일, 1인당 소득의 74.92%, 1인당 소득의 117.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월을 기준으로 창업의 경우 절차, 일수, 비용, 최소자본금 등이 각각 10개, 17일, 1인당 소득의 17.8%, 1인당 소득의 347.7%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3. 실증분석 결과

(1)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한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이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효과를 측정한 <표 2>의 (A1)에 따르면, 2003년 1월의 규제수준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규제순위가 1단계 올라가면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026%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순위 이외에, GDP 대비 국내 총투자는 경제성장과 1%의 유의수준에서 양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규제수준과 경제성장 간에는 다음의 세 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낮은 규제수준으로 인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 둘째,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규제수준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률과 규제수준이 음의 상관관계를 갖게 해주는 다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 연구자가 첫 번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찾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의 요인으로 인해 규제수준과 경제성장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규제수준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 더미, 법체계 더미, 위도, 경도 등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가지고 2SLS (Two Stage Least Squares) 방법을 이용해 (A1)을 다시 추정하였다.

<표 2>의 (B1)에 따르면, 규제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고려되었을 때, 2003년 1월의 규제수준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규제 순위가 1단계 올라가면 경제성

4) 2004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창업과 관련된 (절차, 일수, 비용, 최소자본금) = (12개, 33일, 1인당 소득의 17.9%, 1인당 소득의 402.5%)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해마다 변경되는 규제수준 측정 기준에 맞춰 과거의 자료를 수정하고, 이를 www.doingbusiness.org에 공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수정된 2004년 자료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였다.

〈표 2〉

규제와 경제성장

	Panel A : OLS	Panel B : 2SLS
	(A1)	(B1)
규제지수	-0.026 [4.77]**	-0.025 [3.44]**
1989 1인당 GDP의 로그값	-0.137 [0.80]	-0.521 [2.41]*
1989 초등학교 진학률	0.003 [0.32]	-0.012 [1.74]+
1989 중등학교 진학률	-0.025 [2.91]**	0.008 [0.83]
정부소비(% of GDP)	-0.058 [1.66]	-0.043 [1.33]
국내총투자(% of GDP)	0.118 [4.51]**	0.100 [4.38]**
지역더미-아프리카	-1.546 [3.14]**	-1.296 [3.14]**
지역더미-남아메리카	-0.792 [1.71]+	-0.441 [1.19]
상수항	4.256 [2.57]*	6.844 [3.50]**
표본 수	95	78
R-squared	0.56	0.62

주 : [] 안의 숫자는 t값의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장률이 장기적으로 0.025%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OLS의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앞에서 살펴본 전반적인 규제수준의 효과 대신에 진입규제의 구체적 항목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규제수준 변수 대신에 창

업단계,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최소창업자본금, 창업 관련 항목들을 제외한 규제수준 등을 포함시킨 추정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진입규제의 각 항목들을 모두 포함시켜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한 〈표 3〉의 (A5)에 따르면, 2003년 1월의 창업비용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창업비용의 계수값은 -0.005인데, 이는 1인

〈표 3〉 진입규제와 경제성장 : 규제의 직접효과

	Panel A : OLS					Panel B: 2SLS
	(A1)	(A2)	(A3)	(A4)	(A5)	(B1)
1989 1인당 GDP의 로그값	-0.254 [1.43]	-0.224 [1.26]	-0.259 [1.52]	-0.241 [1.28]	-0.230 [1.27]	-0.646 [2.42]*
1989 초등학교 진학률	0.002 [0.31]	0.005 [0.57]	-0.002 [0.26]	0.000 [0.03]	-0.002 [0.21]	-0.021 [2.16]*
1989 중등학교 진학률	-0.023 [2.73]**	-0.024 [2.91]**	-0.021 [2.69]**	-0.018 [2.15]*	-0.017 [2.09]*	0.014 [1.26]
정부소비(% of GDP)	-0.051 [1.49]	-0.052 [1.54]	-0.070 [2.08]*	-0.066 [1.89]+	-0.094 [2.75]**	-0.057 [1.39]
국내총투자(% of GDP)	0.112 [4.28]**	0.115 [4.40]**	0.099 [3.83]**	0.097 [3.75]**	0.079 [3.01]**	0.081 [2.88]**
지역더미-아프리카	-1.628 [3.34]**	-1.566 [3.23]**	-1.124 [2.25]*	-1.304 [2.65]**	-0.736 [1.46]	-0.441 [0.62]
지역더미-남아메리카	-0.839 [1.77]+	-0.723 [1.53]	-0.804 [1.83]+	-0.692 [1.54]	-0.548 [1.20]	-0.275 [0.62]
창업절차	-0.018 [0.36]				-0.037 [0.77]	
창업소요일		-0.006 [1.25]			0.002 [0.38]	
창업비용			-0.004 [2.89]**		-0.005 [3.17]**	-0.010 [1.70]+
창업최소자본금				0.001 [0.82]	0.001 [1.32]	
창업규제 이외 항목들의 규제수준	-0.028 [4.69]**	-0.027 [4.52]**	-0.027 [4.98]**	-0.031 [5.05]**	-0.027 [4.31]**	-0.019 [1.89]+
상수항	5.446 [3.09]**	5.032 [2.89]**	6.320 [3.70]**	5.579 [3.13]**	6.688 [3.69]**	9.035 [3.51]**
표본 수	95	95	94	91	90	77
R-squared	0.58	0.59	0.61	0.56	0.61	0.51

주 : [] 안의 숫자는 t값의 절대치임.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이 10% 포인트 감소할 경우, 1인당 GDP 증가율은 장기적으로 0.05% 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입규제 관련 항목들을 포함한 추

정식의 견고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단계,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최소창업자본금을 하나씩만 포함시켜 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하였다. (A1)-(A4)에 따르면, 진입규

제 변수들을 모두 포함시켰을 경우와 각 변수들을 하나씩만 포함시켰을 경우의 계수값이 그 유의성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입 관련 규제변수들의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지역 더미, 법체계 더미, 위도, 경도 등의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를 사용하여 2SLS (Two Stage Least Square) 방법에 의해 (A5)를 다시 추정하였다. 그러나 내생성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각 설명변수에 가장 적합한 도구변수 집합을 따로 찾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진입관련 모든 규제변수들에 적합한 도구변수들을 찾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장과 유의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창업비용과 진입규제 항목들을 제외한 여타 규제수준만 내생적이라고 가정하였다.

〈표 3〉의 (B1)에 따르면, 규제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고려되었을 때, 2003년 1월의 창업비용이 1989~2004년까지의 1인당 GDP의 평균 성장률과 10%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했을 경우 창업비용의 계수값은 -0.01로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의 -0.00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0.01의 계수값 추정치는 1인당 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

율이 10% 포인트 감소할 경우, 1인당 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1% 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정책 시사점

국가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측정해서 규제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기업의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 항목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보고서 자료를 가지고 진입과 관련된 국가별 규제수준을 파악하였다. 기업환경보고서는 기업활동을 열 가지로 구분해 각 부문별로 세부 규제 항목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진입과 관련된 항목들에는 창업소요일, 창업절차,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등이 있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진입규제가 경제성장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입규제 항목들인 창업절차, 창업소요일, 창업비용, 창업최소자본금 가운데는 창업비용이 경제성장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당소득 대비 창업비용 비율을 10% 포인트만큼 감소시킬 경우 경제성장률은 0.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진입규제를 완화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진입과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은 창업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 절차, 창업소요일, 창업최소자본금 등

을 낮추는 것도 규제완화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정책변수의 선택과 그 완화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Johnson, Simon, Robinson, James A., 2001, "The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an Empirical Investig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1 (5), 1369-1401.
- Barro, Robert J., 1991,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2), 407-443.
- Dawson, John W., 2006, "Regulation, Investment, and Growth Across Countries", *Cato Journal* 26 (3), 489-509.
- Djankov, Simeon, La Porta, Rafael, Lopez-de-Silanes, Florencio, Shleifer, Andrei, 2002, "The Regulation of Ent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7 (1), 1-37.
- Djankov, Simeon, McLiesh, Caralee, Ramalho, Rita Maria, 2006, "Regulation and Growth", *Economics Letters* 92 (3), 395-401.
- Gwartney, J.D., Lawson, R. A., 2005,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Annual Report*, Vancouver, BC: Fraser Institute.
- Hall, Robert, Jones, Charles I., 1999, "Why Do Some Countries Produce So Much More Output Per Worker Than Other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 (1), 83-116.
- Solow, R. M., 1956, "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 65-94.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4 - Understanding Regulations*, 2004.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5 - Removing Obstacles to Growth*, 2005.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6 - Creating Jobs*, 2006.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7 - How to Reform*, 2007.

〈부록〉

「기업환경보고서」의 창업(Starting a business) 항목 요약

기업가는 산업 혹은 상업 비즈니스에 진입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인·허가를 획득하고 모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비준을 획득하고 주식 등록의 절차를 마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시장 진입 시 필요한 법률과 규제, 각종 공개된 정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절차와 소요시간, 비용, 그리고 최소자본금(Paid-in Minimum Capital Requirement) 등을 추산할 수 있다. 데이터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하여,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와 그 절차에 관한 많은 가설이 세워졌다.

1. 회사에 대한 기준

- 유한 책임 회사로서 한 국가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운영됨.
- 사업 시행일 한 달 후 자국민으로만 구성된 50명의 종업원을 가지며, 적어도 일인당 소득의 100배의 매출을 올림.

2. 창업 절차에 대한 기준

- 절차는 기업 창립자와 외부 요소(정부 기관, 변호사, 회계사, 공증인 등)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상호 작용으로 정의되고, 재단 창립자들은 법으로 제3자의 개입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절차를 스스로 완성함.
- 모든 산업에 필수적인 절차들만 수행하며 특정 산업에만 필요한 절차들은 배제함.
- 창업 전 사전 조사로 인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 기업의 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처리 등과 관련한 절차는 필수적인 절차에서 배제됨.

3. 창업소요일에 대한 기준

- 시간은 달력을 기준으로 하며 각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

간은 하루로 가정함.

- 만일 추가적인 비용을 들어서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함.
- 기업가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소요된 시간은 무시하며, 기업가는 모든 진입 규제와 그에 따른 결과를 처음부터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함.

4. 창업비용에 대한 기준

- 회사법(Company Law)의 조문과 상법(Commercial Code) 그리고 특정 규제와 비용 계획은 창업비를 산출하는 근거자료로 사용됨.
- 만일 같은 수준의 근거자료가 충돌한다면, 가장 많은 비용을 소요하는 절차를 사용함.
-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은 모든 비용에서 제외함.

5. 창업최소자본금에 대한 기준

- 창업최소자본금은 기업가가 기업을 등록하기 전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회사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말함.